

基礎主義法序說

韓 基 彦
(教育學科)

I. 序 言

本稿에 있어서는 나의 構想하는 ‘基礎主義法’에 관하여 그 構造를 중심으로 논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리켜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으로 기초주의가 무엇인지, 教育理念에 초점을 둔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을 때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즉, “아무리 교육이념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教育方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실 그렇다. 그러기에 이를테면 듀이는 그의 교육철학인 실험주의를 말함과 동시에 ‘문제해결법’으로써 그 구현의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또한 그의 제자인 킬패트릭(William H. Kilpatrick) 역시 생활의 철학을 강조함과 아울러 유명한 ‘構案法’(Project Method)를 이론체계화함으로써 신교육운동의 보급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先例를 알고 있는 터기에 나 역시 기초주의를 제창하게 된 당시부터 ‘基礎主義法’에 대해서는 진직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기회있을 때마다 관련 논문이나 저서의 글중에서 비록 짧막한 표현으로나마 ‘기초주의법’의 3次元 6段階에 대하여 언급해 왔던 것이다.

더욱이 지난번에는 仁川社會科教育學會 초청으로 가진 학술발표회에서는 「社會科教育과 基礎主義——教育方法論으로서의 基礎主義法을 中心으로」(1989. 7. 1.)라는 제목으로 기초주의와 기초주의법에 대하여 社會科教育과의 관계에서 논급할 수 있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는 좀더 ‘基礎主義法’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논급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II. 學習指導法の 公理

여기서는 특히 울릭(Robert Ulich)이 제시한 여덟 가지 公理에 대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 그 까닭은 나의 주창하는 바 ‘基礎主義法’의 3次元 6段階에 대하여 적지 않은 示唆性이 있어서인 것이다. 이 말의 뜻은 3차원 6단계라는 기본구상 자체에 대하여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다만 그가 말하는 여덟 가지 公理 하나 하나가 의미있는 말들이고

보니 큰 무리가 없는 한 나의 기초주의법인 3차원 6단계의 관련부분에 배치시킴으로써 크게 참고가 되리라는 생각에서 하는 말인 것이다.

울릭이 말하는 여덟 가지 公理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1. 方法의 個性化의 公理

우선, 教師의 人格이 있다. 주로 지적, 논리적인 교사는, 정서적인 면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교사와는 다른 수업 방법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즉, 理論的인 인간과 實踐的인 인간은, 동일 과목을 상이한 방법으로 체계화하고, 또한 전달할 것이다. 똑 같은 이유로 여러 가지 형의 학생들은, 각양 각색인 교사들에 의해서 매혹될 것이다. 이에 더하기를 환경에 의한 많은 영향이라든가, 학습지도의 목표 및 학생들의 목적에 관련한 제문제가 이 장면에 파고 들어간다. 지방의 학교와 도시의 학교와는, 또 산업적인 교육기관과 진학중심적인 교육기관과는, 그 組織의 精神이라든가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학습지도의 방법도 상이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교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選好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독창적인 교육자도 없거니와, 강한 개인도 아닌 것이다. 거기에 또, 자기 학생들이 지니는 다종 다양한 개성이라든가, 다종 다양한 교과가 지니는 要求에의 고려에서, 교사는 제 방법의 모든 범위에 정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훌륭한 학교장은 자기의 직원과 학생의 잠재 능력을 발견할 것이다. 칙제한 획일성에 의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느니보다도, 도리어 현명한 개성화에 의해서, 그는 가지가지의 人格이 지니는 興味를 자극할 것이다. 동시에 그는 자기 직원이 지도 및 학습의 온갖 기본적 원리를 인식하는 것을 원조할 것이다.

2. 全體性的의 公理

개성화의 원리가 논리적으로 전체성의 원리에 통한다는 것은,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진실이다. '個人'이란, 전인적인 '不可分'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학습 지도는 지적 및 정서적인 면의 쌍방에 있어서, 학생의 전인적에 걸쳐야 할 것이다. 의심 많은 비평가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낮은 능력심리학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도 좋지만, 우리들이 정서적인 것에 더하기를 의지의 작용도 꾀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제학교에 있어서, 흔히 '意志의 能力'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의 訓練을 무시하는 경향에 직면하여, 우리들은 정신 생활의 가능한 분류에 관하여 어떠한 분류를 신봉하든, 意志가 한개의 중요한 인간적 특질이라는 것을 밝혀야만 된다. 만약에 우리들이 인생의 시련에 대해서 젊은이들을 준비시켜야 된다면 감정, 정서, 논리적 技能 뿐만 아니라 자발성, 불굴, 인내의 제 능력이 젊은 시대에 개발되어야 한다.

全體性的 原理라고 하여도, 우리는 교사가 그의 일의 온갖 순간에 인간의 혼의 온갖 가능한 부분에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가장 흥미있어 보이는 직업 조차도, 만약에 철저하게 수행된다면, 매혹적 향기가 언제나 밖으로 배어나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최우수 교사조차도, 더욱이 그의 약간 성숙한 학생들을 데리고 知的世界를 여행할 때에는, 이 젊은 여행자들의 눈이 가지가지의 文化的 產物의 아름다움을 즐길수 있는 언덕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람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적 풍경이 없는 단조로운 길을 거쳐서 안내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때로는 있다. 그러나, 긴장의 수시간이 즐거운 흥분의 수시간과 교호하고, 고독한 수시간이 좋은 벗 가운데서의 수시간과 교호하는 것과 같은 여행을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듯이, 학교생활의 여행도, 教育的 經驗에 수반할 수 있는 풍부성을 나타내는 가지가지의 추억을 학생들에게 주고 끝나야 한다. 그 까닭은 우리들은 人生을 지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보다 풍성되게 成長하기 위하여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연한 일이지만, 全體性的의 公理는 肉體와 靈魂의 관계에도 들어 맞는다.

3. 適切性 또는 動機附與의 公理

만약에 학습 지도가 학생의 人格 전체에 접근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학생의 本性에 있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자기 및 타인을 관찰하여, 우리들은 학습의 효과가 學習意慾에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의욕은 정상적인 상태 아래에서는, 멀지 않아 한 점으로 집중될 두 개의 원천으로부터 생긴다. 하나는 자신에 의한 動機附與이다.——우리가 책을 읽고, 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인격의 내적 경향에 일치하기 때문이라든가,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흥미에 맞는다고 우리들이 느끼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동기부여이다. 누군가가 어떤 지식을 획득할 것 같으면,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시키든가 혹은 우리들의 지각적 배경에 대한 교묘한 자극에 의해서, 어떤 知識을 획득하려고 하는 興味를 우리들에게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훌륭한 교사는, 훌륭한 소설가나 극작가와 다를 바 없다.

4. 多面性的의 公理

교육이론에 있어서는 몇 개인가의 요인이,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諸要因 조차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치 우리들이 개별성의 공리와 나란히, 전체성의 공리를 설정했듯이, 이제야 적절성의 공리에는 그것을 보충할만한 것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젊은 학습자의 변하기 쉽고 마음 내키는대로 처사하는 일에 대하여 과도하게 관대하다는 것은, 때로 교육에 있어서의 과도한 개인주의에 통하며, 또한 두 개의 중요한 원리를 침해 한다. 하나는 심리학적 원리이요, 또 하나는 객관적 원리이다.

心理學的인 原理는, 누구나 다양한 도전적인 과업에 직면하여, 부단한 시행착오를 행함으로써만이, 자기 성장의 한계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에 있다.

多面性의 公理에 내재하는 客觀的 原理는, 고도로 발달한 한 개의 문명의 내부에는, 현대 생활의 복잡한 일에 참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약간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한 많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엔진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기사, 정치 기구에만 관심을 가지는 정치가, 자기 자신이 전문 분야의 境界를 넘어서 사물을 바라 본 적이 없는 학자——이들 모두는, 몇 개의 점에서는 대단히 유능할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위험한 존재이다. 專門化라는 것은 우리 현대문명을 쌓아 올려 온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현대 문명에서 보면 위험한 것이 되었다. 우리는 산업상, 또는 전문 직업상의 과도한 전문화로부터서만이 아니라 人類의 사회적, 문화적 나아가서는 정신적 發展의 多面性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압도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는 정치철학, 경제이론 및 놀랄만한 수요인 현대의 代用宗教로부터도 또한 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5. 精神的 秩序의 公理

착실하게 전개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몇 개의 학습지도법을 지니는 초등, 중등 및 제삼의 단계로 큼지막하게 구분하게 되는 것인 흔히 학교의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에 대한 답은 우선 첫째로, 우리는 경험의 영구화와 증진을 위한 機構를 필요로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 인간은 모든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신체적 발달에 있어서의 한 개의 공통된 리듬과, 몇 개의 共通된 思考法則에 움직여지는 한 개의 精神構造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서 구하여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前提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조직적인 교육이나 논리학과 같은 과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과학이나 문화도 또한 불가능하다. 진보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능력에 따라서, 이성의 생활에 참가하는 일에 달려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또한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 통하는 教育體制의 현명한 構築이 필요하게 된다. 인간의 문명의 불안정한 업적은, 우리들이 이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그다지 진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및 장년기의 명확한 특질—— 그것들의 相互關係라든가 그러한 계 시기의 심리학적 배경——에 관한 보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 있어서는 심리학자와 교육자는, 생리학자와의 밀접한 연락아래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論理的 思考力이나 학습의 질서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이론은, 정신 발달의 시기에 관한 여러 과학적인 이론보다도 훨씬 오래되는 것이다.

6. 教科의 關聯性的 公理

정신적 질서의 원리는,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교수 활동의 또 하나의 공리, 즉 교과와의 관련성의 공리를 지닌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적인 관심을 지니는 다수의 도시 거주자에 대해서, 그들이 출석해 온 무수한 講演 가운데서, 얼마 만큼이 그들의 知性에 형성적 영향을 끼쳤는가를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그들은 고백할 것이다. 나아가 만약에 누군가가 잡지, 다이제스트 및 팜플렛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열심히 읽고 있는 일의 教育的 效果에 관해서 연구를 시작한다면, 그 답도 또한 놀랄만큼 부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영속적인 영향은, 한 개의 전체가 충족될 때에만 생긴다. 즉 우리들은 단순히 흥미에 의해서, 심리학적으로가 아니라 그 教科, 또는 적어도 그 관련 분야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각기의 새로운 교수 사항은, 학생의 속의 '知覺群'에 응한 것이어야 한다는 헤르바르트의 公理는 이러한 사실에 의거하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와 같은 고려는 教育課程과 크게 관련을 가질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앞의 몇 장에서, 教育計劃이 한 개의 中心的 理念에 의해서 통일되고, 또한 그것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 교육계획이 지니는 사회적·윤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이제야 우리는 교수활동과 학습의 內在的 要求에 관한 이 진술의 보충을 행하여야 되겠다. 원자와 같이 산재하는 가지가지의 잡지식을 소화하는 일은, 특히 그것들이 지극히 광범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한사람의 성인으로서의 곤란한 것인 동시에, 내적 일관성을 결여한 교육과정을 어린이들에게 과하는 일은 교수방법상의 오류이다.

7. 自主的 活動의 公理

사람들이 충분히 그것을 응용하지 않고, 몇 세기에 걸쳐서 얘기하고 또한 우리들이 헤르바르트의 사상에 관련하여 이미 언급한 바인 한 개의 교육적 공리는, 自主的 活動의 公理이다. 모든 훌륭한 교수 활동은, 수동성을 건설적 활동으로 바꾸는 일 가운데 있다. 또한 실천, 혹은 실험에 의한 학습이라는 요구, 작업학교 혹은 활동학교의 사상 등도 이와 똑같은 고려에서 오고 있다.

새로이 발견된 이 自主的 活動의 原理는, 몇 사람인가의 교육자, 특히 프로페타리아계급의 이데올로기에 매혹된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도 성급하게, 수공적 훈련과 동일시 되었다. 그들은 사고라든가 학습도 또한 行爲의 形式이라는 것을 망각했던 것이다. 경제적 견지에서조차, 이론적 제 개념의 숙달은 사상의 접경 및 진보의 매개로서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經驗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돕고, 또한 모든 새로운 세대가 인류의 역사를 다시금 되풀이하는 것을 생략케 한다. 그러나, 그 응용상의 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주적 활동을 주장하는 운동은, 신교육연맹(New Education Fellowship)과 같은 단체를 통하여 전통적인 관례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준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의 몇 안 되는 국제적 세력의 하나이다.

그런데, 근대적인 교육방법론이 努力과 그 최종적인 成果와의 불일치에는 또한 다른 이 유가 있다. 모든 학교는 현재의 문명이 지니는 공통된 병을 이어 받고 있다. 즉, 문명은 통일적인 윤리적 확신의 결여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리하여 문명은 자기 자신을 주체할 줄 모르고 있다.

8. 倫理的 指導의 公理

“교수 활동의 비결은, 제 문제를 公理로 바꾸는 일에 있다”고 피테는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교수 활동에는 倫理的인 指導가 필요하다.

만약에 教育이 어떠한 지식의 부분에서이건, 교사와 학생의 쌍방을 단순한 지적, 혹은 수공적 기능을 넘어서, 莊子の 遇話[木刻師]에 있는 것과 같은 선명한 이해에로 이끌었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다른 논리를 사용해서 말한다면, 만약에 교육이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고 있는 “存在의 보다 한층 깊은 차원” 속으로, 교사나 학생을 이끌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교육은 말의 가장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윤리적이며, 또한 자유였다는 것이 된다. 그 교육은 두뇌를 일반적, 또한 근본적인 성격을 지닌 제 가치에 관련시키는 것으로 해서, 두뇌를 심화시키고, 확신시킨 것이 된다.

이러한 차원에까지 달하게 된 교수활동이나 학습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방법의 문제 그 자체에 관한 유일한 참된 이해를 준다. 그릇된 방법은 그릇된 인간을 만들고, 좋은 방법은 조용한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와 같이, 우리들이 사상과 행위의 내적 질서를 하나님의 말의 일부분으로서,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혹은 莊子が 말하듯이, 그러한 좋은 방법은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術과 하나”로 하며, 이리하여 “더 바랄나위 없는 나무로 발견하는” 일을 돕는다. 우리는 또 그러한 좋은 방법이, 우리들을 자유롭게 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철학적 외관의 온갖 상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위대한 교육철학자들로부터 배우는 의미인 것이다.

9. 여덟 가지 公理의 理解

이렇듯, 이미 앞에서 미리 일러 두었듯이, 여기서는 울릭이 제시한 교육방법의 여덟 가지 公理를 인용해 보았던 것이다.

이 여덟 가지 공리는 우리에게 많은 학적 시사를 준다고 하겠다. 나는 이것을 기초주의 법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을 재배치해 본 바 있다.

즉, ‘基礎主義法’은 다음 절에서 상론하게 되듯이 ‘3次元 6段階’로 되어 있다. 울릭(Ro-

bert Ulich)의 公理에서 시사를 얻어 이를 관련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I. 探 究：全體性的 公理

1. 目 的；動機誘發의 公理, 適切性
2. 計 劃；多面性的 公理

II. 覺 醒：個性化的 公理

3. 蒐 集；教科의 關聯性的 公理
4. 理 會；倫理的 指導의 公理

III. 實 現：精神的 秩序의 公理

5. 發 表；自主的 活動의 公理
6. 評 價；美的 表現의 公理(덧들어졌다는 評價)*

그러면 이제 질을 달리하여 좀더 '기초주의법'의 구조 자체에 대하여 구명해 보기로 하겠다.

III. 探究·覺醒·實現

생각컨대, 敎育過程에 있어서 동양의 경우는 자발성(학습)내지 '覺醒'을 내세우며 서양의 경우는 외적 자극(지도) 내지 '探究'를 강조한다는 東西敎育思想의 葛藤을 超克하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나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 형성의 논리인 '탐구·각성·실현'이라는 세 가지 次元에서 찾아보기로 하였다.

이것은 基礎主義를 착상, 제창하게 된 체험과 학문적 신념과 깊은 관련성을 갖거니와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로맹의 遺言」이 나에게 준 위대한 인간 형성의 논리 내지 敎育 방법론적 시사성이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로맹의 遺言」 자체는 거론치 않고 다만 그것이 시사하는 바 인간 형성의 방법론만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나는 自己體驗과 학적 수련의 결과와 아울러 특히 로맹의 유언으로부터 촉발되어 다음의 세 가지야 말로 人間形成에 있어서 언제나 있어야 하는 敎育的 要件이라고 보았다. 즉

첫째, 先人들의 業績에 敬虔하게 머리를 수그려 크게 배우고,

둘째, 自己 位置와 使命을 直視하고,

셋째, 敢然히 머리를 들어 새로운 文化創造에 邁進토록 한다.

는 것인데, 여기에는 '探究', '覺醒', '實現'이라는 세 가지 次元을 각각 對應시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거기에 인간 형성의 방법으로서 一貫性이 있으며, 敎育 실제상 이 삼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빼놓을 수도 없고 또 그 중 어느 하나가 없어서도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 까닭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람은 누구나 천부의 소질을 가지고 있을 뿐

아무도 그 옛날 人類가 이룩해 놓은 그 방대한 文化財를 몸에 익혀 치니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다. '探究'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 점차 나이가 들에 따라서 내가 무엇이며, 내가 이 세상을 위하여 온갖 精力을 다하여 生涯事業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말하자면 자기 사명에의 '覺醒'의 차원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청소년으로부터 장년·중년기에 접어들에 따라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社會와 人類를 위하여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 일 자체는 질적으로 높고 인류·사회를 위해서 貢獻度가 높은 유익한 것일수록 좋은 것이다. 이것이 '實現'의 차원인 것이다.

그런데 이 探究·覺醒·實現이라는 세가지 次元은 비교적 인간 발달 과정의 단계에 따라서 力點이 두어지는 것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을 잘라 보아도 거기에는 항상 중점의 차는 있을지언정 3要素 중 그 어느 하나나 둘이 전적으로 결여된다는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은 一生이 形成의 過程인 것으로서 비록 나이가 들어 아는 것이 많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인물인 경우, 그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實現), 거기에는 반드시 探究와 覺醒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탐구니 각성이니 하여 온 그것은 실현을 생각치 않는다면 무의미하며 空疏하여 단순한 현학적 유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실로 실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식이나 포부는 종당 각자로 하여금 백일몽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 생각컨대, 探究·覺醒·實現의 3次元은 어느 과제, 어느 학과 그리고 생애를 통하여 學習 즉 人間形成에 있어서 요청되는 것으로 보거나와 그것을 좀더 세분한 것이 다음 절에서 설명할 여섯가지 단계인 것이다. 즉, 目的·計劃·蒐集·理會·發表·評價가 그것이다.

Ⅳ. 여섯 가지 段階

1. 目的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 우선 무엇보다도 크게 요청되는 일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가, '가답'을 아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것을 가리켜 기초주의법의 여섯가지 단계 중, 첫째 단계를 '目的'이라고 해 본 것이다.

목적은 학습의 동기유발과 관계가 있으며, 목적 의식이 뚜렷할 때 학생의 학습 의욕은 왕성해진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배우는 입장에 있는 학생 스스로가 왜 이것을 배워야만 되는가, 학습목적이 뚜렷할 수록 학습의 능률이 오르고 학습의 효과 또한 큰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소수의 학생의 경우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훨씬 많은 학생들은 이 점이 분명치 않은 것이 보통이다. 학교에 와보니 오늘은 이것을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왜 그 주제를 배워야 하는지 잘 모르는 법이다. 따라서 무슨 관심이나 흥미가 처음부터 있을 까닭도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더 필요하고 의미있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즉, 교사는 새로 다루게 되는 주제에 대하여 우선 학생들이 큰 관심을 갖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교사는 그 교실 전체에 하나의 좋은 教育的 雰囲気을 조성하여야만 된다. 그와 동시에, 새로 배우게 되는 주제에 관하여 간략하나마 절대적으로 학생들이 배울 생각이 나게끔 일련의 설명을 함이 좋으리라고 본다. 교사는 학습의 목적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사실, 학생들은 처음에 어떤 주제에 대하여 배우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여간한 사전준비 없이는 알아 듣기 어려운 법이다. 그러니만큼 교사가 자연스럽게, 지극히 일상적이고 신변적인 얘기부터 話題로 삼아 얘기를 시작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화제로부터 학생들 두 세 명과 얘기가 오고 가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랜 시간 걸리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그러면 오늘은 (또는 오늘부터는) 여기에 대하여 공부해 보자고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되는 가운데는,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가를 어느 정도 교사는 명확히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학생들 또한 학습의 目的이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는, 직설적으로 교사가 학습의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실은 그것 이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지극한 興味를 불러 일으키고, 이것을 꼭 배워야겠다, 그리고 왜 그것을 배워야만 되는가, 목적 의식이 뚜렷해졌다고 한다면, 이 첫 단계는 예정대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目的'의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학습지도의 방법은 質疑法이요 講義法이라고 하겠다. 이 問答學習이기도 한 '질의법'은 교사가 물음으로 해서, 학생들은 생각하게 되고 즉각 답하여야 한다는 상황가운데서, 그 질문과 관계되는 사항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사는 질의법이 지니는 교육기술상의 특성이요, 장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이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결코 '네, 아니오'식의 一問一答의 심검고 단조로운 질의 응답이 아니라, 진정 교사의 그 질문 하나로 해서, 새로 배울 주제 전체를 본질적으로 생각할 계기가 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만큼 교사는 그 주제의 시종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잘 계획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와같이 잘 계획된 전체적인 脈絡 속에서의 第一問이요, 첫번째 질문인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해서 학생들도 더욱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應答하는 일이 이후 전개될 학습 전체의 흐름에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수한 교사는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치밀한 계산아래 질문을 하고 학생의 응답을 받아 들여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잘막한 길이의 설명인 강의법 또한 이 단계에 있어서 매우 유효한 방법이다. 비록 교사가 말로 설명하는 시간은 지극히 짧다하더라도, 그것이 지니는 교육적 효과는 지극히 큰 것이다. 이를테면, 교사가 새로운 주제에 대한 흥미를 환기시키는 수단인 하나로, 교사가 감명 깊게 읽었던 어떤 책 얘기를 했다고 치자. 그 책을 대하게 된 계기라든가 개요 내지 잊혀지지 않는 名句 한 귀절을 들려 주었다고 가상해 본다. 그 결과 예상되는 효과는 名著라고도 할 책 한권을 알게 되어, 학생들 자신도 그 책을 사거나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 이상의 효과로는, 빨리 이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좋겠다는 강렬한 학습 의욕을 불러 일으키게 한 점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우리는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에는 ‘왜, 그것을 배우는가?’를 자문 자답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본래 학문 자체의 발달만 하여도, 그것은 ‘왜’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학문의 학문인 哲學에서는 이 懷疑精神을 중시하고, ‘옳게 묻는 일’을 중시하는 것이니, 옳게 물음으로써, 옳게 답하는 길이 열릴 것을 예상해서라고 하겠다.

우리 先賢들 역시 한 사람의 사람됨을 말할 때 ‘好問學’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즉 ‘묻고 배우기를 즐겼다’는 말은 그만큼 그가 학문에 애착심을 갖고 진리 탐구에 열의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한 상황을 표현한 말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好問學者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왜 그것을 배워야만 하는지 ‘目的’ 意識이 분명했을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학습지도의 단계를 말함에 있어 ‘기초주의법’에서 目的을 첫째 단계로 꼽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2. 計 劃

기초주의법의 두번째 단계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교사와 학생 양측에서 모두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보면 한 학습 단위로서의 계획이 서게 될 것이다.

본래 교육이 시간안에서 영위되는 인간기업이니만큼 한 주제, 한 單元 역시 전체적 배당 시간과의 관계에서 생각치 않을 수 없다. 즉, 이렇게 해서 그 특정 주제 내지 특정 單元이 이를테면 12시간 배당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이다.

그럴때 우리는 한 주제, 한 單元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이 12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말할나위도 없이 교사의 경우는 스스로가 教科教師로서 1년 전체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특정 주제, 특정 단원에 대해서는 「學習指導案」을 마련하느니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은 물론이다.

교사측의 계획을 뜻하는 학습지도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는 학생지도에 임하는데 있어 ‘학습지도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러므로 교사에 있어 학습지도에 대한 ‘계획’은 필

수 불가결한 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교사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보다 앞서서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 수업에 있어서는 교사는 두 가지 형태로 학생들의 '계획'에 대한 지도에 임해야 되리라고 본다.

하나는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그 주제, 그 단원에 대하여 '계획'을 세워보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학생 각자는 같은 주어진 시간량 즉 앞서 假想한 것으로 치면 12시간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 12시간을 어떠한 요령으로 배정하여 공부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세워보게 되는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그 구체적으로 세워진 '계획' 내용은 학생마다 다를 것이다. 여기에 個人差 내지 個性差가 나타나는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확실히 교사의 계획대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과는 判異한 樣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個別的으로 '계획'해 보는 일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공부가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학생에게 시간을 주어 계획을 세워보게 해서 좋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교사는 학생 각자가 '계획'에 대하여 골몰하고 있는 동안 교실안을 돌아 다니면서 適宜 개별 '계획'에 대한 개별 '지도' 내지 상담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사와 학생이 집단적으로, 즉 공동 '계획'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요 형태이다.

이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진행과정, 즉 학습내용과 시간배정에 관하여 토의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이 立案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되도록 그 학급 전체의 학습 능력을 머리에 그리면서 결코 교사의 일방적인 사전 '계획'의 강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교사가 예상한 사전 계획대로 '계획'을 세워간다면 학생들은 할 일이 없게 되고 '계획'의 흥미를 잃게 됨은 십사리 짐작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도리어 그 자신이 당초 立案해 본 '계획'의 내용은 언제나 가슴에 간직해 두되, 끈기 있게 학생들과 討議를 거듭해 가는 가운데 진정 교사—학생 '계획'이 되도록 해야 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계획'의 단계는 그것 자체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계획' 단계의 소요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것이다. 하물며 시간낭비라고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별적 '계획'이건 교사—학생 '계획'이건, 그와 같은 立案過程을 통하여 학생들은 그 主題나 單元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욱 배워 보아야겠다는 학습의욕을 북돋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앞서 들은 개별적 '계획'이라는 경우는 '달톤 플랜'(Dalton Plan)의 경우가 그랬듯이 학습의 주체가 학생 개개인에 있을 때이다. 따라서 학습진행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학생마다 비록 주제나 단원은 同一하다고 하면서도 같지 않음은 물

론이다.

3. 蒐 集

기초주의법의 세번째 단계는 '수집'이다.

우리가 어떤 주제나 단원에 대하여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는 단계로서 關聯資料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일이다. 그 수집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는 방법이 책을 읽는 일이다. 대개의 지식은 오늘날 책에 쓰여져 있다.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책을 수집 보관하고 있는 곳이 '도서관'이다. 어떤 사람이 고 자기 혼자서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다량으로 책을 보관 수집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기에 公共施設로서 국가 단위, 또는 지역단위 내지 대학 등 교육기관에 '도서관'이 마련 되어 있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수집' 단계에서는 어떻게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학습기술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교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서 이용법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학생들은 되도록 일찍부터 도서관 이용에 친숙토록 방향 지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도서관 이용에 친숙토록 만들어 준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할 때에는 우선 무엇보다도 '책'을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고, 나아가 가까이서 관련 도서를 쉽사리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나 '도서관'에 달려 가도록 마음먹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도서관에는 어느 곳이나 유능한 司書 직원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 참고문헌 찾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저치 말고 司書 직원을 만나 의논하고 조언을 얻도록함이 옳다고 본다.

또 자기가 찾아간 도서관에 이미 간행된 책이 없다고 너무 낙담해서는 안된다고 일러 주리라고 본다. 다른 도서관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복사기술도 늘고 있고 보면, 어느 도서관이고 그 책이 있거니와 하면 복사의뢰 등으로 해서 직접 '眞本'을 접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회귀본조차 우리는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수집' 단계에 있어서는 관련 자료의 수집이 제 1 要件이 되는 것이니만큼 관계 서적을 수집, 독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도서관 이용법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脈絡에서 하는 말이다.

'수집'과 관련된 학습 기술로는 '面接'을 들어야겠다. 즉, 어떤 주제, 어떤 단원에 대하여 잘 아는 專門人士를 직접 만나 그가 알고자하는 사항을 묻고 이에 대한 지식을 수집 획득하는 일이다.

물론 여기에는 면접에 앞서 알고자하는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항목을 세워 사전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요긴한 사항에 관한 情

報知識을 제통적으로 요령있게 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質問紙法’ 사용에 있어서도 같은 유의점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방면에 걸쳐 수집된 관계자료는 다음 ‘理會’ 단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것으로 同化케 되는 것이다.

4. 理 會

기초주의법의 네번째 단계는 ‘理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당혹감비슷한 것을 느끼시리라고 본다. 그것은 ‘理會’라는 두 글자에서 받게 되는 인상이 아닐까 한다.

보통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사고 과정 또는 사고 현상을 가리켜 ‘理解’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理解’ 대신에 ‘理會’라고 하고 있는냐는 의문일 것이다.

내가 ‘理解’ 대신에 굳이 ‘理會’라는 글자를 쓰기로 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보다 깊이 알게 됨’을 뜻하고 싶어서였던 것이다. 즉, ‘理會’란 ‘理致會得’을 줄인 말이다. 뜻을 알게 될 뿐더러 그것이 몸에 붙어 정말 자기 것이 되도록 한다는 뜻인 것이다. 그러므로 핵심적인 본질 이해가 된 상태라는 뜻으로 ‘理會’라고 해 본 것이다. 그만큼 바로 알게 되어 살이 되고 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理會’ 단계에 동원되고 구사되는 학습지도 방법 및 기술에는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個別學習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스스로 힘들여서 수집한 관계 자료를 검토·비판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體系化해 보는 일이다. 이렇게 체계적 정리를 하는 작업과정에서 각자는 그 주제, 그 단원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낯 설은 고장이라도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보고 확인하는 일이 走馬看山보다는 훨씬 강렬한 인상을 오래 지속하는 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심 참담, 자기 혼자 힘으로 그 내용을 이해 파악하려고 힘쓸 때 갑자기 깨달는 수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참 ‘理會’인 것이다.

다음은 ‘分團學習’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각자가 자료 수집부터도 역할 분담을 하여 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理會’ 단계를 진행시키는 경우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座長격인 분단이 있을 것이고, 분단원 각자는 그들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討議를 거치는 가운데 학습 내용의 體系化, 계통화, 법칙화, 원리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세 사람 모이면 文殊의 지혜’라는 말도 있듯이 분단원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아는 바를 쏟아내면 거기에는 ‘개별학습’ 때와는 달리 아주 훌륭한 結果가 나오기 마련인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나 ‘理會’는 개별학습보다도 ‘분단학습’이 효과적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학생의 개성차가 때로는 분단학습 때보다도 ‘개별학습’인 경우에 보다 더 유리하게 발휘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개성차의 문제는 똑같은 논리로 해서 사람에게 따라서는 ‘개별학습’ 때보다 ‘분단학습’ 과정에서 자기 실력 이상으로 발휘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특정 학습방법 하나로써 확일적으로 시종 일관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개성차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 ‘理會’의 단계에서 ‘實驗’을 주로 한다거나 ‘討論法’에 의한다거나 해서 多樣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단계에 있어서 잊어서 안될 것의 하나는 교사가 주도하는 ‘講義法’이다. 강의법은 학습지도법 중에서도 그 역사가 오래된다. 그 교육적 효과 또한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십년간 강의법은 줄곧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것은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수동적인 것이 되게 만든다는에서이다.

우리는 그간 ‘강의법’에 대해서 피력된 수 많은 비판에 대하여 응당 귀를 기울여야 되리라 하고 본다.

그러나 또 한편, ‘강의법’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심분 이해하고 이것을 잘 살릴 줄 알아야 된다고 본다.

생각컨대 ‘강의법’의 장점은 학습내용에 대하여 계통적이며 이론적이며 원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교사가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다인수 학생에게 동시에 내용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강의를 주도하는 교사는 강의 중에도 실세없이 수강하는 학생들의 표정을 주시하면서, 때로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절하게 省略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회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5. 發 表

기초주의법의 다섯번째 단계는 ‘발표’이다.

이 발표 양식에는 구두발표를 비롯하여 文書化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는 일 그리고 ‘實演’해 보이는 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口頭發表’양식에서는 개별 구두발표와 집단발표가 생각되는데, 집단발표로는 이를테면 ‘陪審制討議法’이 적절하리라 본다.

‘구두발표’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에도 발표자가 사전에 충분히 자기 자신 발표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단위 시간내에 계통적으로 요령있게 그 준비된 內

容傳達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발표내용이 간단한 메모, 또는 원고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을 수록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明快하게 다른 동급생들에게도 의사 전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언제나 시간내에 발표하도록해야 한다. 이를테면, 10분내에 발표토록 되어 있다면 이 1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내에 마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중요순으로 얘기를 해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전에 발표시간을 알고 있었다면 더욱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발표분량을 조절해 둬야 옳다.

발표내용과 발표시간의 관계는 '집단발표'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배심제 토의법'을 사용할 때, 우리는 언제나 짧게 자기가 발표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핵심적 내용'을 제일 먼저 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토의의 전과정을 통하여 몇 번 차례가 주어질 때마다 같은 요령으로 중요순 따라 말해간다면, 토의가 끝난 후 아쉬움이 적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문서화된 '報告書' 형식인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 양식부터 알아야 한다. 교사는 학년초에 보고서 작성법에 대하여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학생들은 이 보고서 작성법을 잘 알아야 되며, 실제로 그 양식을 지켜야만 된다.

결국 학생들은 이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그가 이회한 바 내용을 문서로써 포현 정리 발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의 발표양식이 '實演'이다. 자연과학관계 교과목에 있어서의 '實驗操作'의 경우라든가 미술, 음악 등에 있어서의 實技發表, 이것은 체육, 무용 등에 있어서의 '實演' 또한 마찬가지이다.

문학 방법에 있어서도 '演劇'은 역시 실연 형식의 하나이다. 사실 학생들에 있어서는 이 '劇化活動'이 지극히 흥미 진진한 것이어서, 시간 사정이 허용하는대로 이 '극화 활동' 또한 권장 할만한 것임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극화활동에 있어서는 기성 각본에 의하는 것과 아울러, 학생들 스스로가 脚本을 작성하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다.

6. 評 價

기초주의법의 여섯번 단계는 '평가'이다.

이 평가 양식에는 학생 자신들에 의한 평가와 교사에 의한 평가가 있다.

평가는 한 주제, 또는 한 單元이 끝날 때마다 행하는 것이 좋다. 그 까닭은 평가 자체가 지니는 교육적 의미와 교육적 효과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평가를 통하여 그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한 교육적 반성을 거듭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 자신들에 의한 평가는 개별적으로 반성 평가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분단 단위 내지 학급 단위로 '집단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이나 학생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기 반성을 해본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그 의미와 효과가 크다고 본다.

또하나, 교사에 의한 평가는 이미 기왕에도 해 왔기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 유의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교사에 의한 평가가 학생들에 대해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을 달리하면, 평가는 한 주제, 한 단원 학습이 끝날 때마다 교사 스스로가 '自己反省' '자기 평가'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교사는 젊은 교사나 나이 많은 노련한 교사에 있어서나 항상 자기 반성, 자기 평가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어떤 교사에 있어서나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절대 완전 무결한 수업이란 생각할 수 없다는데서 하는 말인 것이다.

교사에 의한 평가 양식에는 이미 널리 알려졌고 또 현재도 사용하고 있듯이, 論文式 또는 객관식 出題 양식이 있다. 그 구체적인 형식이나 논문식 또는 객관식 출제 방식이 지니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논급치 않기로 하겠다. 그 까닭은 교육학개론이나 교육평가 등 강의와 저서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 일러 둘 일은, 어떠한 경우나 교사는 그 때 그 때 평가의 目的에 비추어 보아 그것에 합당한 평가형식을 선정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테면 4枝選多型 일색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평가'에 있어서 또 하나 유의할 일이 있다. 그것은 평가는 '平生評價'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 누구나가 일생을 마쳤을 때 그의 生涯 전체가 평가됨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학생들은 물론, 교사 자신도 한 주제, 한 單元에 대한 학습결과의 평가는 하면서도 '평생평가'까지는 미처 생각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독 이 '평생 평가'라는 생각을 일러 주어야 되리라고 본다. 교사 또한 학생 개개인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平生評價'의 視點을 받아 들여서 행하여야 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 평가 중에서도 가장 두렵고 결정적인 것치고 '평생 평가' 이상 가는 평가가 또 달리 어디 있겠는가? 그러기에 학생들 또한 이 점에 각별한 유의를 하여 정당한 역사적 評點을 받도록 해야 되리라고 본다.

이상 우리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기초주의법의 여섯 가지 단계의 名稱인 '目的' '計劃' '蒐集' '理會' '發表' '評價'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다음은 要約을 곁하여 기초주의법의 구조를 표로써 제시해 보려고 한다.

V. 結 言

다음의 표 「基礎主義法の 構造」는 기초주의법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과 아울러,

基礎主義法의 構造

(表)

基礎	主	義	法	韓國的 教育方法觀新釋	基礎主義에서 본 어린이의 學習形態	
基礎에서 새로운 基礎에까지 精力最善活用 基礎에의 힘을 펴는 것은 힘을 들인다는 것이다 힘의 使用 一極에서 極까지	I. 探究 (全體性的의 公理)	1. 目的 (動機誘發의 公理) 2. 計劃 (多面性的의 公理)	I. 立志	1. 問學 (事師) 2. 精察 (擇友)	1. 묻고 배우며 (問答學習)	
	II. 覺醒 (個性化的의 公理)	3. 蒐集 (教科의 關係性的의 公理) 4. 理會 (倫理的 指導의 公理)	II. 明知	3. 思辨 (讀書) 4. 明覺 (篤敬)	3. 생각하고 분간하며 (討論學習)	
	III. 實現 (精神的 秩序의 公理)	5. 發表 (自主的 活動의 公理) 6. 評價 (美的 表現의 公理)	III. 力行	5. 研磨 (處世) 6. 道通 (順言)	4. 함께 깨달으며 (自發學習) 5. 같고 닮으며 (勞作學習) 6. 완전히 통달한다 (遊戲學習)	
				誠	참	
				誠	하	
				誠	계	

注 力

韓國的 教育方法觀 新釋 및 基礎主義에서 본 어린이의 學習形態를 아울러 적어 본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표는 原型으로서의 3次元 6段階인 ‘기초주의법’ 자체와 이와 관련시켜서 생각해 본 後二者해서, 모두 세 가지가 한 表로 표시된 것이라고 하겠다.

첫째는 原型으로서의 ‘基礎主義法’ 자체에 관해서이다.

우선 기초주의법의 原理的 概念으로서의 ‘基礎에의 注力’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힘들이는 곳을 제대로 알고 힘써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힘을 뺀다는 것은 힘을 들인다는 것이다’라는 언뜻 듣기에 逆說같은 말이 실은 진리임을 알게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名人 達人의 경지를 보아도 곧 납득할 수 있는 사실이요 말인 것이다. 名演奏家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들은 피아노이건 후춧이건 그가 다루는 악기를 대함에 있어 의견상 별로 힘들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 악기로부터 나오는 音程이나 音曲은 정확하고 예술성이 높기만 하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 연주자가 다년간의 수련 끝에 터득한 바 힘들이는 곳을 제대로 알아, 다른 곳에는 다 힘을 뺀 것 같으나 정작 힘들일 곳에 제대로 힘을 들인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기에 기초주의법에서는 精力最善活用을 말하고 ‘基礎에의 注力’을 말하는 것이다.

3次元으로서의 探究, 覺醒, 實現을 들었다. 또 6段階로서는 目的, 計劃, 蒐集, 理會, 發表, 評價를 들었거니와 이에 관련된 설명은 이미 本文에서 밝힌 바 있음으로 더 이상 부연치 않기로 한다.

둘째는 韓國的 教育方法觀 新釋에 관해서이다.

사실은 이것 자체가 하나의 큰 論題로써 詳論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여기서는 지극히 부차적인 위치에서 간단한 설명으로 끝이려고 한다.

한국적 교육방법관으로 크게 주목한 것은 栗谷 李珣의 教育思想이었다. 그러기에 ‘誠’을 말한 것이라든가 1. 立志, 2. 明知, 3. 力行을 말한 것이라든지, 또 표중 괄호로 여섯 가지 사항을 표시한 바, 事師, 擇友, 讀書, 篤敬, 處世, 慎言 등은 모두 이를테면 『擊蒙要訣』이나 『學校模範』에 典據를 둔 말들인 것이다.

이렇게 한국적 교육방법관의 골격을 기초주의적 관점에서 나 나름으로 再體系化하고 다시금 6단계를 問學, 精察, 思辨, 明覺, 研磨, 道通이라는 나 자신의 漢字用語를 제시해 보았다.

이제 한자로 표시한 말을 간단히 풀어서 말한다면,

1. 왜라고 묻고 배우는 일이요(問學)
2. 자세하게 살피며(精察)
3. 생각하고 분간하며(思辨)
4. 밝게 깨달으며(明覺)

5. 갈고 닦으며(研磨)

6. 완전히 통달한다(道通)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誠	I. 立志	{	1. 問學
		2. 精察	
	II. 明知	{	3. 思辨
4. 明覺			
III. 力行	{	5. 研磨	
	6. 道通		
基礎	I. 探究	{	1. 目的
		2. 計劃	
	II. 覺醒	{	3. 蒐集
4. 理會			
III. 實現	{	5. 發表	
	6. 評價		

세째는 基礎主義에서 본 어린이의 學習形態에 관해서이다.

이것은 위에 든 기초주의법을 어린이의 학습형태로 제시해 본 試案이다. 여기에는 자연 한국적 교육방법관 신석을 적절히 옮겨보기도 한 셈이다.

그러기에 ‘참하게’라는 말을 ‘誠’과의 관계에서 써보았으며, 3차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알아보고’, ‘생각하고’, ‘હે본다’는 표현을 探究, 覺醒, 實現의 옮긴 말로 써 보았다.

또한 여섯 가지 학습형태로서 나는 問答學習, 觀察學習, 討論學習, 自發學習, 勞作學習, 遊戲學習을 표중 괄호안에 넣어 참고로 예시하였거니와, 학습의 흐름인 6단계로 말하면, 1. 묻고 배우며, 2. 자세하게 살피며, 3. 생각하고 분간하며, 4. 밝게 깨달으며, 5. 갈고 닦으며, 6. 완전히 통달한다고 해 보았다.

그러나 이 6단계를 약간 어려운 말로 표시할 때, 目的, 計劃, 蒐集, 理會, 發表, 評價가 되는 것이니, 기초주의법이 아래는 유치원서부터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 등 연령을 묻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人間形成의 教育方法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1. 李榮德, 『教育의 過程』, 서울, 培英社, 1976.
2. 李溶傑, 『學習의 基礎』, 서울, 培英社, 1976.
3. 韓基彥, 『韓國教育의 理念』, 서울大學校出版部, 1968.
4. 韓基彥, 『韓國教育思想史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69.

5. 韓基彥, 『基礎主義』, 서울, 培英社, 1973.
6. 韓基彥, 『韓國思想과 教育』, 서울, 一潮閣, 1973.
7. 韓基彥, 『現代인과 基礎主義』, 서울, 世光公社, 1979.
8. 韓基彥, 『韓國인의 教育哲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8.
9. 韓基彥, 『教育의 世紀』, 서울, 良書院, 1989.
10. Bloom, Benjamin S.,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76. (金豪權譯, 人間的 諸特性과 學校學習, 서울, 韓國能力開發社, 1977).
11. Bossing, Nelson L., *Progressing Methods of Teaching in Secondary Schools* (Vols. 2), 1942.
12. Bruner, J.S.,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13.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14. Hilgard, Ernest R. and Bower, Gordon H., *Theories of Learn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5.
15. Phenix, Philip H.,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58.
16. Dewey, John,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16, 1957⁽²⁹⁾.
17. Scheffler, Israel, *Reason and Teaching*,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3.
18. Ulich, Robert,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1961.

Prolegomena of "Foundationism Method"

HAHN, KI UN

In this thesis, my purpose is to discourse upon "Foundationism Method"(F.M.) and whose structure which was conceived in terms by myself. The table of F.M. is a condensed thing of this thesis.

Firstly, I refer to F.M. itself as a prototype. Before everything, I thought of "the concentration of one's effort on foundation" as a principal concept of F.M. It means that we have to know the endeavour point where we should put forth all our strength. "What we take off our force in doing something is to do something with all our force." This phrase looks paradoxical. But as seeing our everyday experiences and that of master's, we easily realize what it means and that it is true. Let me take an example. When a master plays the piano, he looks as if he didn't put forth much strength in appearance. But what is a reason that the tone and the rhythms from his musical instrument sounds so distinct and involves high artistic value? It is the consequence of his many years training. So his eyes are opened to see the endeavour point to play the piano well, and he can devote his own energies just to it. Therefore F.M. takes a grave view of the best practical use of one's energies or "the concentration of one's effort on foundation". I stated about investigation, awakening and realisation as 3 dimensions of F.M. and enumerate purpose, plan, collection, comprehension, recitation and evaluation as that of 6 stages.

Secondarily, it is about new translation of Korean viewpoint of educational method (K.V.E.M.). The educational thought of YULGOK LEEYI (栗谷 李珥) is worthy of notice as K.V.E.M. So the key word SUNG (誠 : great sincerity), and his states of IPJI (立志 : decision of purpose in life), MYUNGJI(明知 : discernment) and YUKHAENG(力行 : great exertion), and also the words SASA(事師), TAEKWO(擇友), DOKSUH(讀書), DOKKYUNG(篤敬), CHEOSE(處世) and SHINUN(慎言), all are drawn from 『KYUKMONG-YOGYUL(擊蒙要訣)』 and 『HAHKKYO-MOBUM(學校模範)』, The latter six words are put in parenthesized in the table. After resystemising the main bones of K.V.E.M. by the viewpoint of Foundationism, I pronounced it again by my own words as 6 stages; MOONHAK(問學), JUNGCHAL(精察), SABYUN(思辨), MYUNGKAK(明

覺), YUNMA(研磨), and DOTONG(道通). Now I translate these words briefly. It means:

1. inquiring "so what" and studying (MOONHAK)
2. thoroughly examining (JUNGCHAL)
3. thinking and discerning (SABYUN)
4. enlightly awakening (MYUNGKAK)
5. practicing and improving (YUNMA)
6. perfectly being conversant with (DOTONG)

So it could be arranged as follows:



Thirdly, I considered children's learning patterns from the viewpoint of Foundationism as a tentative plan of F.M. New explanation of K.V.E.M. was adequately applied to doing it. So the key word of "CHAMHAGE" was used in the relation of SUNG, and the expression of "ALABOGO", "SAENGKAKHAGO" and "HAE-BONDA" corresponds to 3 dimensions—exploration, awakening and realisation. Moreover, in the table, I exemplified six learning patterns; an inquiring and answering learning, an observation learning, a discussion learning, a spontaneousness learning, a work learning and a play learning. These six learning patterns are equivalent to the six learning stages; ① inquiring & studying ② carefully examining ③ thinking & discerning ④ enlightly awaking ⑤ practicing & improving and ⑥ perfectly mastering. But when we express these six stages more seriously, these are purpose, plan, collection, comprehension, recitation and evaluation. So we can use F.M. as an educational method for human formation of all people not to ask his age nor his scholaristic ability.